

# 악취민원 빗발 치는데...정화조 없애려면 최소 20년

### 인천 폭발사고로 살피면 광주 정화조 실태

### 하수도 40% 아직도 '합류식'

### 6만 3150개 정화조 남아 있어

### 2007년부터 '분류식' 교체 사업

### 예산·인력 부족에 진척 안돼

광주시 하수도의 40%가 아직도 정화조를 따로 뒀아 하는 '합류식 하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인천에서 폭발사고까지 발생해 지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탓에 교체에 수십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인 219명이 광주시에 "악취가 심해 못살겠다"는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0년대 말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근처에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울며 겨자먹기로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지독한 냄새는 물론 하수관이 막혀 우수가 넘치거나 독한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전기 설비가 고장나는 등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현장소장은 "결보기에 세련됐지만, 아파트 정문 근처 정화조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잠을 수가 없다"면서 "시대가 어느 때든 아직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정화조로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당장 민원을 접수하고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노를 직접 내려 보낼 관이 없어 정화조를 따로 뒀아 하는 '합류식 하수관' 대신 '분류식 하수관'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수조 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들고 현재 진행되는 하수도 정비계획상 교체에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이 아파트의 경우 "차레가 오르면 최소 20~3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서구의 아파트 뿐 아니다. 광주시 동구 충장파출소 인근 금남지하상가와 동구 학동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정화조 악취 때문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광주 시내 하수관 총 4453km 중 61.9%인 2759km만이 분류식 하수관이며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1693km가 여전히 합류식 하수관이다.

광주에는 올 6월 기준으로 6만 3150개의 정화조가 남아있다. 분노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악취는 물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매년 1회씩 100여 만원 비용을 들여 슬러지(침전물) 청소 등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 비용은 정화조가 있는 집 주민들이 관리비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 4일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있던 오래된 정화조가 폭발해 도로

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고는 정화조 안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메탄 가스가 팽창해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도 이러한 점에서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하수도정비계획을 15년째 진행 중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2조 7683억원을 들여 총연장 1748km 구간의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국비 20% 시비 80%)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속도는 도통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비 예산은 하수도 요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운영비나 노후관로 정비 비용 등을 제하면 하수관 교체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교체사업을 진행할 각 동을 구역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누는 뒤 한 해에 한 블록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설계 발주·용역, 재원 확보, 착공 및 준공까지 이뤄지려면 한 블록 당 5~6년씩 걸린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 설명이다. 현재는 북구 두암동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창동 1분구 1블록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류된 하수 관로를 연결하면 돼 간단히 끝낼 수도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경우 집집마다 방문해 관로를 연결해야 해 공사가 오래 걸린다"면서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으로선 자기 거주지 공사 차례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애니메이션 모꼬지 캐릭터 퍼레이드 시민들이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린 '제1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 행사에서 캐릭터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7곳이 참가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마약범죄 느는데

### 국과수 감정 거북이 걸음

광주에서 마약범죄가 늘고 있지만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의 감정회신(회신이란 매년 지연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제때 신청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북구 을)이 국과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이 국과수에 마약류 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2017년 1313건에서 지난해 3551건으로 170% 급증했다.

감정 의뢰 증가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 회신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사이 감정 회신을 보면 소변감정은 시간이 다소 줄었지만(3.2일→2.8일), 모발감정(4.9일→8.4일)과 압수품 감정(3.1일→5.2일) 회신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장비 부족과 마약 분야 감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인력은 44명으로 한 명이 한 해 평균 1740여 건을 분석하고 있어 감정 회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회신이 늦는 원인으로 꼽혔다.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는 면역시험장비 1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3명이 마약류 및 약물 감정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행기 기자 hyunki@

###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

### 공사중지 명령 일부 해제

광주시 서구는 지난달 27일자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 내려졌던 공사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시스템 비계 등 3개 가설구조물을 해제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해당 가설구조물들은 지난 6월 사용 기한이 만료됐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서구는 지난달 23일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요청한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신 본격적인 건물 해체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새 가설구조물은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거친 뒤에야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층짜리 건물공사 중 201동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동쪽 기둥과 남쪽 외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7년 12월까지 8개 동을 전부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활동기간 1년여 남은 5·18진상조사위, 3년간 조사율 58% '지지부진'

### 동행명령장 등 활용 부진 지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활동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5·18진상조사위 조사기간이 내년 12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보고서 작성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작년 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은 3년 동안 58%에 그쳤다"면서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5·18진상조사위가 이날 밝힌 구체적 진척도는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 경위·책임소재 확인 65% ▲헬기사격 여부 68% ▲무장전투기 출격 대기 60% ▲민간인 사망사건 70% ▲민간인 상해사건 55% ▲외곽지역봉쇄작전 중 민간인 학살사건 70~90% ▲행방불명 및 압매장 60% ▲압매장 소재 및 유해발굴·신원확인 30% ▲군·경 연행·구금 중 인권침해 사실 45% ▲조직적인 진상 은폐·축소 실제 조사 30% ▲성폭력 사건 조사 80% ▲북한 개입 및 침투설 조사 20~99% ▲보안사 등 국가기관의 진상 은폐·탄압 시도 46% ▲군·경 피해 조사 30% 등이다.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송선태 위원장은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많아진데다 같은 해 11월 조치가 개편되면서 과제 진척도도 낮아졌다"면서 "조사를 통계를 보수적으로 계산할 것일 뿐 실제 진척도는 이보다 더 높다"고 해명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

서만 이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됐다"며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근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정호훈 당시 특전사령관과 장세동, 허화평 등 다른 주요 인물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지난 2019년 발굴된 유골 가운데 최근 5·18 행방불명자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 것에 대한 조사결과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교차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신원 확인 보도가 나오니 검증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 일수록 5·18진상조사위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특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상업지구</li> <li>▶ 유흥가능 (전용 100평)</li> <li>▶ 시세 - 10억</li> <li>▶ 급매 - 6억8천</li> </ul>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 720만</li> <li>● 연수익 - 9000만</li> <li>●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li> </ul>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h2>010-6670-9800</h2>		<h2>010-2614-9801</h2>								